

취재요청

- 제목 :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단위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 일시 : 2024년 2월 19일(월)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 담당 기자
- 연락 : 기선_인권운동공간 활 (010-9059-7298) / 조혜연_김용균재단 (010-3260-1942)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단위 긴급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0일(화) 11:0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문제제기했던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집단감염피해뿐 아니라 쿠팡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지금까지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쿠팡은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물류,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여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안정노동을 더욱 양산하고 있으며, 심야노동·고강도 노동 등으로 노동자가 쓰러지거나 죽어나가도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이와 언론에 대해서까지 소송 등의 집요한 공격을 하는 쿠팡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도 제대로 된 조치나 판결에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3.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1만6천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언론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침해에 그치지 않고 쿠팡에서 노동하는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실현할 수 없게 하는 큰 이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이에 사건 당사자와 관련 사안이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인권단위가 긴급하게 쿠팡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단위 긴급기자회견>

- 2024.2.20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사회 : 조혜연 (쿠팡대책위, 김용균재단)

■ 당사자 발언

1. 공공운수 쿠팡물류센터지회
2. 전국언론노조

■ 규탄 발언

1.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로 드러난 권리침해와 구조
-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2. 일터에서의 블랙리스트와 불안정노동
- 안준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
3. 플랫폼 노동과 블랙리스트 : 인권적 의미과 과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
4. 기업 쿠팡의 무권리 경영규탄과 이후 대응
- 김혜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 공동주최 단위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계속 추가중)